

“6월에 발생하는 해충”

박쥐나방(Endoclyta excrescens Butler)



변 병 호/임업연구원 산림곤충과장

이 해충은 임목의 가지와 줄기의 인피부(韌皮部)를 가해하여 수액 이동을 저해하므로써 수세를 약화시키고 고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관상수의 경우 가지의 일부를 고사시켜 수형을 나쁘게 한다.

○분포: 한국, 일본, 중국, 시베리아

○가해수종: 오동나무, 포플러류, 아카시아, 자작나무, 벗나무, 느릅나무, 버드나무류, 참나무, 물푸레나무, 밤나무, 호도나무, 단풍나무, 편백, 삼나무, 버즘나무, 오리나무.

○가해상태: 유충이 나무의 줄기 또는 가지의 인피부를 고리모양으로 환상 식해(食害)한 후 목질부 속으로 파고들어 간다.

이때에 거미줄과 같은 실과 벌레똥으로 막(膜)을 만들어 충공(虫孔)밖을 막아 놓아 흑같이 보인다.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태풍이 불 때에 피해목의 가지나 줄기가 부러지게 되는데 부러진 부위에 벌레똥이 거미줄과 같은 실로 철해져 있으면 본 해충의 피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형태: 성충의 길이는 34~45mm이고 몸체는 가늘고 길다. 날개를 편 길이는 80~90mm이며 몸과 날개는 갈색이고 앞날개에는 황백색의 반문이 있다. 뒷날개는 암갈색이며 뒷면은 회갈색이다.

알은 1mm미만의 구형이며 흑색이다. 유충의 두폭은 6mm

내외이며 체장은 60mm정도이다. 머리는 갈색이고 몸은 유백색이며 마디 마디 갈색의 작은 반문이 산재해 있다.

○생활사: 1~2년에 1회 발생하며 지방과 가해수종에 따라 발생경과가 달라 따뜻한 지방에서는 1년 1회 발생하며 난태(卵態)로 월동하지만 2년에 1회 발생할 때는 피해지의 갱도내에서 유충태로 월동한다.

성충은 8월 중순~10월 상순 사이에 우화하고 수명은 6~12일이며 알은 지면에 낳는다. 우화시간은 16~17시이며 17~18시부터 어두어질 때 활발하게 활동하므로 박쥐나방이라고 한다. 암컷 한마리의 포란수는 3000~8000개 정도로 평균 5500

생활환



성충

- 개 장 : 80mm
- 몸 색 : 암갈색
- 발생회수 : 1년 또는 2년에 1회
- 우화시기 : 8월중~10월 상순
- 수 명 : 7일내외
- 포란수 : 5500립



유충

- 몸 길이 : 50mm
- 몸 색 : 갈색
- 우화시기 : 8월상~9월하순
- 유충기간 : 2~3주



유충

- 몸 길이 : 50mm내외
- 몸 색 : 유백색(갈색의 무늬)
- 유충기간 : 5월~8월
- 탈피회수 : 10회 내외
- 가 해 : 3령 이전 초목
3령 이후 수목

난

- 크 기 : 1mm
- 색 : 흑색
- 산란시기 : 8~10월
- 월 동 : 지면

개를 포란하고 있으며 산란수는 5000개 내외이다.

다음해 5월에 부화한 유충은 각종 초본식물의 줄기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가해하다가 3~4령이 지난후인 6~7월에 나무로 이동한다. 이동한 유충은 나무의 줄기나 가지의 인피부를 환상으로 먹고 목질부로 파고 들어가 위나 아래로 향하여 15cm 가량 뚫고 들어간다. 이때 벌레똥과 나무부스러기를 갱도밖에 실로 철하여 침입공을 막아 놓는다. 갱도내의 유충은 계속 가해하므로 벌레똥은 점점 커져 멀리서 보아도 눈에 잘 띄어 피해목을 찾기가 용이하다.

노숙유충은 실을 토하여 출입공을 막은 후 용화한다. 번데기 기간은 2~3주 내외이며 복부에 있는 횡상용기(橫狀隆起)로 갱도내를 자유로이 이동한다.

우화시기가 되면 갱도 입구의 덮개를 밀고 번데기를 반쯤 밖으로 내보낸 다음 우화한다.

○방제법 : 1. 어린 유충은 잡초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가해하므로 이때(6월이전)에 임내의 잡초를 제거하고 지면에 메프제 1000배액을 살포한다.

2. 유충의 침입공을 조기 발견하여 철사를 넣어 갱도내의 유충을 찢어 죽인다.

3. 유충의 침입공에 메프유제를 놓고 구멍을 막는다.

4. 식재면적이 작을때는 지제부의 수간에 끈끈이를 발라 유충의 침입을 막는다. ※